

2026.06.15.

VOL.593

글로벌바이오헬스산업동향

GLOBAL BIO-HEALTH INDUSTRY TREND



FOCUS

**프랑스의 EU 최초 비만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결정과
유럽 공중보건 정책의 구조적 전환**

CONTENTS

※ 본 내용은 동향 조사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01

FOCUS

프랑스의 EU 최초 비만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결정과 유럽 공중보건 정책의 구조적 전환 1

02

무역통상

주요 제약사, 미국의 약가 압박 속에서 독일에 대한 투자를 축소	5
EU 5개국, 미국 약가 압박 대응을 위해 통합적 유럽 제약 정책 촉구	5
인도, 미국과 무역 협상서 특허 의약품 관세 동등 대우 요구 추진	5
인도, 제약 원료 석유화학 제품 관세 면제 연장 검토	6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미국 암 치료 전문기업 뉴발런트 106억 달러에 인수	6
인도, 5년 내 제약산업 규모 두 배 확대 목표 제시	6
미국, 트럼프Rx에 처방약 160종 추가해 총 800종 이상으로 확대	7
스위스 기업, 미국 관세 협정 이후 270억 달러 투자 이행	7
SK바이오팜, 미국 뉴저지에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 개설	7

03

의료 인공지능

스페인 신경과학연구소, AI·물리 시뮬레이션 결합으로 뇌 MRI 촬영 시간 90% 단축	8
바이오허브, 'ESMC'·'ESMFold2' 공개로 암·면역 치료 표적 결합체 설계 성공	8
쿼티언트 사이언스, AI 설계 경구 고형 제제 임상 1상 진입 성공	9
사노피 인도, AI 기반 희귀질환 사전 진단 도구 '엑셀레어' 출시	9
코레디오, FDA로부터 심부전 혈액학 평가 플랫폼 'CPSE™' 혁신 의료기기 지정 획득	10
다이아젠스, AI 염색체 핵형 분석 소프트웨어 'AI 오토비전' 중국 최고 등급 의료기기 승인 획득	10
코너스톤 로보틱스, AI 기반 내시경 수술 로봇 플랫폼 '센티어' 유럽 CE 마킹 획득	11
렉투리오, AI 기반 의료·간호 교육 플랫폼으로 역량 중심 훈련 체계 전환 주도	11

GLOBAL BIO-HEALTH INDUSTRY TREND

※ 환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전월 평균

04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코디야르 테크노베이션-지멘스, 인도 제약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위한 'CXO 밋' 개최	12
미국 제네릭 의약품 국내 생산 촉진, ANDA 비용 인하 두고 의견 엇갈려	12
에임 메디컬 로보틱스-지멘스 헬시니어스, MRI 연동 뇌수술 로봇 플랫폼 통합 협약 체결	13
우라, FDA 정책 변화에 따라 스마트링에 혈압 모니터링 기능 추가	13
코즘 메디컬, 듀크 헬스·메이요 클리닉과 골반 수술 후 맞춤형 회복 기기 개발 협약 체결	14
바이오카디아, 허혈성 심부전 세포치료제 '카디앰프' 일본 허가 신청 지지 자문 기록 확보	14
글로벌 화장품 펩타이드 합성 시장, 2032년 3억 3,130만 달러 규모 성장 전망	15
데뷔-나투라, AI 기반 피부 장수 성분 복합체 공동 개발·상업화 파트너십 체결	15

05

의료서비스

BRICS 국가, 원격의료를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요소로 채택	16
베트남 닥터게어 임플란트 클리닉, 체계적인 치료 프로세스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16
이집트 보건부, 엘 알라메인 병원 내 국가 의료관광 프로젝트 확대 추진	17
인도, 원격 로봇 수술로 '의료관광'에서 '의료 수출' 시대로 전환	17
인도 머스크 클리닉, 글로벌 수준의 의료 기준과 로봇 기술로 해외 거주 인도인 환자 유치	18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 'C37' 플랫폼 통해 글로벌 의사 파트타임 진료 허용	18
우즈베키스탄-베트남, 전통의학 및 통합의학 분야 의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19
필리핀 대통령, 일본국제협력기구 총재와 회담 ... 헬스케어 협력 확대 논의	19

06

글로벌 행사

FOCUS 프랑스의 EU 최초 비만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결정과 유럽 공중보건 정책의 구조적 전환

1 비만의 만성질환화와 유럽 의료재정 구조의 변화

시장 배경 및 현황

- 세계비만연맹(World Obesity Federation, WOF)의 '2025 세계비만지도(World Obesity Atlas 2025)'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비만 인구는 2010년 5억 2,400만 명에서 2030년 11억 3,000만 명으로 1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유럽 지역 보고서 기준 유럽 내 과체중·비만 유병률은 남성 63%, 여성 54%에 달해 공중보건 위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



▶ <관련 내용 보기>

- 국제 학술지 비만리뷰(Obesity Reviews)에 게재된 2025년 유럽 내 비만의 거시경제적 비용 연구에 따르면, 유럽 26개국 중 절반 이상에서 비만·과체중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2%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만이 의료재정 구조 전반에 장기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핵심 만성질환 위험 요소임이 재확인됨
- 국제 의약품 데이터 분석기업 아이큐비아(IQVIA)가 2026년 4월 미국 관리형의료약학아카데미(Academy of Managed Care Pharmacy, AMCP) 연례 회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ucagon-like Peptide-1, GLP-1)* 계열 의약품의 글로벌 총 매출은 약 1,320억 달러(한화 196조 6,945억 원)로 전년 대비 33.5%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시장 팽창은 각국 보험당국의 급여 정책 결정을 압박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식사 후 소장에서 분비되는 장 호르몬으로, △인슐린 분비 촉진 △식욕 억제 △위 배출 속도 조절 등의 기능을 함

급여 공백과 접근성 문제의 구조적 원인

- 유럽식품정보위원회(European Food Information Council, EFIC)에 따르면 2030년까지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만 상태에 놓일 것으로 전망되나 WHO 유럽 지역 어느 회원국도 2025년까지 비만 증가 억제 목표 달성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비만 유병률 상승이 의료비 지출 확대로 직결되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도 각국의 급여 정책 대응은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왔음
-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GLP-1 계열 약물을 제2형 당뇨병 적응증(Indication)**에 한하여 급여를 적용하고 있으며, 국제 의학 저널 란셋(The Lancet)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법률상 체중 감량 목적의 의약품이 공적 보험 급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비만 단독 적응증의 급여 확대가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임



** 특정 의약품의 사용이 임상적으로 승인된 질환 또는 증상의 범위로, 보험 급여 기준 설정 및 처방 허용 범위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됨

▶ <관련 내용 보기>

- 프랑스의 경우 위고비(Wegovy)는 2024년부터 처방이 가능해졌으나 급여는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월평균 약 300유로(한화 52만 2,000원)를 전액 자부담해야 했으며,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마운자로(Mounjaro) 사용 환자만 약 7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등 접근성 격차가 누적되면서 급여화 요구가 본격화됨

2 프랑스 급여 설계 구조 분석

급여 적용 대상 및 조건 설계

- 프랑스 정부는 2026년 5월 28일 관보(Journal officiel) 게재를 통해 위고비 및 마운자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공식 확정하였으며, 프랑스 공중보건정보서비스(Service-Public.fr)에 따르면 급여 대상은 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40 이상의 고도비만 환자 ②BMI 35 이상이면서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동반 질환을 보유한 중증비만 환자로 한정되며 2026년 6월 15일부터 급여가 시행됨
- 급여 환급률은 공식적으로 65%로 설정되었으나, 위고비의 급여 적용 가격은 △초기 용량(0.25mg~1mg) 기준 월 146.91유로(한화 25만 5,741원) △유지 용량(2.4mg) 기준 월 195.10유로(한화 33만 9,969원)로 책정되었으며, 프랑스의 장기고액질병(Affection de Longue Durée, ALD)* 제도에 따라 동반 질환 보유 환자는 사실상 100% 환급이 적용되어 급여 대상 환자의 대다수가 실질적 전액 지원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하고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 만성질환

- 처방 체계는 비만치료센터 전문의 또는 △내분비 △당뇨 △영양 분야 전문의의 초기 처방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추적 처방은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정부와 제약사 간 협상이 1년 이상 소요된 주요 원인은 대상 환자 수의 방대함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실상의 평생 복용 필요성에 따른 재정 부담 불확실성이었던 것으로 분석됨

| 프랑스 비만 치료제 급여 설계 핵심 구조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급여 시행일	2026년 6월 15일(관보 게재 2026년 5월 28일)	EU 최초 비만 치료제 상시 급여 적용
급여 대상	BMI 40 이상 또는 BMI 35 이상 + 동반 질환 보유 환자	비만대사수술 적응 기준에 준하는 엄격한 선별
급여 의약품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2.4mg), 마운자로(티르제파타이드)	주 1회 주사형 GLP-1 계열 2종
환급률	기본 65%, ALD 환자 100%	동반 질환 보유 환자 대다수가 실질 전액 지원
급여 적용 가격	위고비 유지용량 월 195.10유로(한화 33만 9,969원)	기존 자부담 대비 30%~40% 인하
처방 체계	초기 처방: 전문의, 추적 처방: 일반의 가능	전문의 쏠림 방지 및 접근성 확대 균형 설계
효과 평가	4개월 시점 체중 5% 이상 감량 미달 시 급여 중단	치료 효과 기반 급여 지속 여부 결정 구조
대상 인구 추산	약 100만 명(프랑스 전체 비만 인구 약 1,000만 명 중)	고위험군 선별 집중으로 재정 부담 관리

[자료] Service-Public.fr, The Connexion, Beyond Approval Pharma

3단계 제도적 추진 구조와 결정 메커니즘

- 프랑스의 급여 결정은 ①프랑스 국가보건당국(Haute Autorité de Santé, HAS)의 임상 평가 ②의약품 경제평가위원회(Comité Économique des Produits de Santé, CEPS)의 가격 협상 ③보건부의 정책 확정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위고비에 대한 HAS의 긍정 의견(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마운자로 평가 완료(2025년 12월)를 거쳐 최종 급여 확정(2026년 5월)까지 약 18개월이 소요됨
- 이번 급여 설계는 단순한 보험 확대가 아닌 ①임상 근거 기반 대상 선별(BMI 기준 + 동반 질환) ②효과 연동 급여 지속 조건(4개월 시점 체중 5% 감량 미달 시 중단) ③처방 경로 통제(전문의 초기 처방 의무화)를 동시에 내장한 조건부 급여(Conditional Reimbursement)**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향후 EU 내 타국의 급여 설계 준거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비용 효과성이 불확실한 혁신적 신약 및 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향후 임상 근거를 생성하거나 성과를 입증하는 조건을 다는 제도

- 프랑스가 설정한 위고비 유지용량 급여 가격 195.10유로(한화 33만 9,969원)는 현재 완전 급여 체계를 갖춘 유럽 주요 시장 중 가장 낮은 공시 가격으로, 유럽 의약품 외부참조가격(External Reference Pricing, ERP) 제도에 따라 인근 국가들이 자국 급여 가격 산정 시 해당 가격을 참조 기준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어, 유럽 전역 GLP-1 의약품 가격 협상에 전반적인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3 GLP-1 급여 확대가 촉발하는 구조 변화

제약·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

- 덴마크 제약 기업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의 2025년 연간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위고비의 글로벌 매출은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고 글로벌 브랜드 GLP-1 비만 시장 물량 성장률은 104%를 기록하였으며, 프랑스 급여화는 이 같은 고성장 시장에서 유럽 공적 보험 수요를 본격 창출하는 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됨
-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노보 노디스크는 2026년 매출·이익이 5%~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미국 제약 기업 일라이 릴리(Eli Lilly)는 마운자로·젠퍼존(Zepbound) 성장세에 힘입어 2026년 전체 매출 목표를 800억 달러~830억 달러(한화 119조 2,088억 원~123조 7,791억 원)로 제시하는 등 양사 간 전망이 상반되게 나타남
- 이러한 구도 속에서 프랑스 급여화는 공적 보험 시장이 본격 개방되는 유럽에서 두 기업 간 점유율 경쟁을 가속화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분석됨
- 프랑스의 급여 결정은 한시적 시범사업이 아닌 영구적 제도 편입(Permanent Inclusion)으로,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가 비만 치료 목적 GLP-1 급여를 이미 시행 중인 가운데 프랑스가 EU 최초로 영구 급여를 확정함으로써,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외부참조가격(ERP) 제도 운용국의 급여 도입 논의가 연쇄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프랑스 급여화에 따른 산업 분야별 파급효과

분야	변화 내용	의미
제약사(노보 노디스크, 일라이 릴리)	유럽 공적 보험 시장 수요 본격 창출	EU 내 점유율 경쟁 가속, 가격 협상력 재편
유럽 의약품 가격 구조	위고비 급여 가격 195.10유로가 ERP 기준값으로 기능	EU 전역 GLP-1 가격에 하방 압력
EU 후속 급여 논의	△영국 △스위스 △그리스에 이어 프랑스 영구 급여 확정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의 급여 검토 가속화
민간 보험·보완의료	급여 대상 외 환자의 자부담 수요 지속	민간 비만 관리 서비스·디지털헬스 시장 확대
비만대사수술 시장	급여 기준이 수술 적응 기준과 동일하게 설계	수술 대체재로서 GLP-1 약물 수요 구조적 확대

[자료] Novo Nordisk, Beyond Approval Pharma, Pharmaphorum

의료재정 및 공중보건 정책 시사점

-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급여 대상 인구 약 100만 명 전원이 치료를 받는다는 가정 하에 연간 재정 소요를 약 1억 유로(한화 1,740억 6,900만 원)로 추산하였으며, 비만 관련 △심혈관질환 △제2형 당뇨병 △만성 신장질환 등 동반 질환 치료비의 증장기 절감 효과가 이번 급여화의 핵심 정책 논거로 제시됨
- IQVIA의 2026년 비만 시장 전망 보고서 따르면 GLP-1 계열 약물의 실제 임상 효과를 검증하는 대규모 실사용증거(Real-World Evidence, RWE)* 연구들이 2029년까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이 연구들이 △심근경색·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발생 감소 △당뇨 예방 △장애통감 감소 등 의료 시스템 차원의 편익을 실증할 경우 유럽 공적 급여 확대의 근거 기반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관련 내용 보기>

* 통제된 임상시험 밖의 실제 진료 환경에서 수집된 실사용데이터(Real-World Data, RWD)를 분석하여 도출한 임상적 근거

- 프랑스 정부는 위고비·마운자로 급여 확정과 동시에 △의료 추적 관리 △식이 지도 △심리 치료 △신체 활동을 결합한 「2026-2030 비만 로드맵(Obesity Roadmap 2026-2030)」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약물 치료를 복합적 만성질환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설계했다는 점에서 향후 EU 비만 치료 정책의 기준 모델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4 도전과제 및 향후 전망

주요 제약 요인

- 유럽 시장조사기관 퓨처마켓인사이트스(Future Market Insights)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 각국 공공의료 시스템은 비만 치료제에 대해 엄격한 비용 효과성 평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규모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급여 시행 시의 재정 부담이 정책 결정을 지연시키는 핵심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급여 대상 인구를 약 100만 명으로 한정하였음에도 연간 재정 소요가 1억 유로(한화 1,740억 6,9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향후 급여 기준이 완화되거나 대상이 확대될 경우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각국 정책 논의의 핵심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음
- GLP-1 계열 의약품은 복용을 중단하면 체중이 재증가하는 특성상 사실상 평생 복용이 필요하며, 이는 단기 약값 지출이 아닌 장기 재정 부담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유럽 각국 보험당국이 급여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온 핵심 배경으로 작용함
- 독일의 경우 GLP-1 계열 약물에 대한 높은 시장 수요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체중 감량 목적 의약품이 공적 보험 급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급여 확대가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이처럼 EU 내 국가별 법적·제도적 환경의 차이가 역내 급여 기준 조화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임

중장기 전망

- 미국 화학회지 C&EN(Chemical & Engineering News)에 따르면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의 핵심 특허가 2026년부터 △인도 △중국 △브라질 등 주요 비(非)서구권 시장에서 순차적으로 만료되기 시작하며,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진입이 본격화될 경우 GLP-1 의약품 가격이 구조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급여를 유보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급여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 성분명

**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과 동등한 효능·안전성을 갖춰 출시되는 복제 바이오의약품으로, 오리지널 제품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됨

- 2026년 현재 경구용 GLP-1 제제가 미국 시장에 출시되기 시작한 가운데, 일라이 릴리의 오르포글리프론(Orforglipron)*** 등 차세대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임상 3상을 진행 중으로, 주사 방식에 거부감이 있는 환자층까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되면 각국 보험당국의 급여 대상 범위 및 재정 영향 평가 논의가 재가속화될 것으로 분석됨

***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1일 1회 복용하는 경구용 GLP-1 수용체 작용제로 제2형 당뇨병 치료 및 체중 감량 목적으로 개발된 차세대 비만·당뇨 신약

- IQVIA의 2026년 유럽 비만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가 세계 최초로 비만을 법률상 만성 진행성 재발 질환으로 공식 인정하고 유럽의회가 비만 정책을 공식 의제로 채택하는 등 EU 차원의 제도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어, 프랑스의 이번 급여화 결정은 유럽 공중보건 정책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앞당기는 기점으로 평가됨

[출처] World Obesity Federation, 2026.;WHO Europe, 2024.02.23.;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2025.08.14.;브랜드경제신문, 2026.04.18.;EUFIC, 2024.08.17.;Pharmaphorum, 2026.05.28.;IQVIA, 2026.01.05.;Euronews, 2026.05.28.;The Lancet, 2024.08.16.;Service-Public.fr, 2026.;The Connexion, 2026.06.03.;Beyond Approval Pharma, 2026.06.03.;Novo Nordisk, 2026.02.03.;CNBC, 2026.02.04.;IQVIA, 2026.04.21.;Healthcare Market Research Worldwide, 2026.02.09.;Future Market Insights, 2025.;Reuters, 2026.05.28.;The Connexion, 2026.05.28.;Prime Therapeutics, 2026.02.19.;C&EN, 2025.12.09.



주요 제약사, 미국의 약가 압박 속에서 독일에 대한 투자를 축소

Major pharma firms cut investments in Germany amid U.S. drug pricing pressure

- 미국이 독일을 대상으로 영국과 유사한 약가 협정 체결을 위한 비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독일 정부가 2027년 163억 유로(한화 28조 3,533억 원) 절감을 목표로 의약품 지출 삭감을 포함한 의료개혁안을 추진하면서 미국 제약사 화이자(Pfizer)가 독일 내 투자 계획 재검토를 공식 발표함
-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Eli Lilly)는 23억 유로(한화 4조 40억 원) 규모 독일 투자를 절반으로 축소했으며,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Boehringer Ingelheim)도 자국 내 지출을 9억 유로(한화 1조 5,666억 원) 삭감하는 등 대형 제약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음
- 미국의 약가 협정 압박과 독일 정부의 자체적인 의약품 지출 삭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유럽 주요 제약 시장에서의 투자 위축과 신약 접근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음

[Politico, 2026.06.09.; Devdiscourse, 2026.06.10.]



EU 5개국, 미국 약가 압박 대응을 위해 통합적 유럽 제약 정책 촉구

Five EU countries call for unified European pharmaceutical approach in response to U.S. drug pricing pressure

- ①벨기에 ②네덜란드 ③룩셈부르크 ④오스트리아 ⑤아일랜드 EU 5개국으로 구성된 베넬룩사 이니셔티브(Beneluxa Initiative)*가 6월 10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약가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국가 차원보다 EU 차원의 통합된 제약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함

* ①벨기에 ②네덜란드 ③룩셈부르크 ④오스트리아 ⑤아일랜드 5개국이 의약품의 합리적 가격 확보와 시장 균형을 위해 구성된 공동 의료 협력 파트너십

- 미국이 독일을 집중 공략하며 영국과 유사한 약가 협정 체결을 위한 비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독일 정부의 의약품 지출 삭감 계획에 반발해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Eli Lilly)와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Boehringer Ingelheim)이 자국 투자 계획을 대폭 축소함
- 미국의 약가 협정 압박이 영국을 넘어 독일 등 유럽 주요국으로 확산되면서 EU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유럽 제약산업의 투자 위축과 신약 접근성 악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됨

[Politico, 2026.06.10.; Fierce Pharma, 2026.06.11.]



인도, 미국과 무역 협상서 특허 의약품 관세 동등 대우 요구 추진

India to seek tariff parity on patented drug exports in U.S. trade negotiations

- 인도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무역법 제232조(Section 232) 기반 특허 의약품 100% 관세에 대해 영국(0%)·EU(15%) 수준의 관세 동등 대우를 요구할 계획이며, 이번 조치는 인도 자국 제약사들의 경쟁력 보호를 위한 것임
- 이에 따라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인도 위탁연구개발생산기관(Contract Research,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sation, CRDMO)*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과 투자 유치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됨

* 의약품 개발의 초기 연구(R)부터 개발(D), 제조(M)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인도가 글로벌 CRDMO 시장에서 영국·EU 대비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계약 제조 허브로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 이번 협상의 관세 동등 대우 확보 여부가 인도 제약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Times of India, 2026.06.11.; IPA Newssack, 2026.06.11.]



인도, 제약 원료 석유화학 제품 관세 면제 연장 검토

India mulls extending duty exemptions on petrochemical inputs for pharma

- 인도 정부가 2026년 4월 도입한 40개 핵심 석유화학 투입 원료(Petrochemical Inputs)*에 대한 무관세 혜택의 6월 30일 만료 시한을 앞두고 연장을 검토 중이며, 이는 중동 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물류 차질과 원자재 비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
- *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s)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화학 성분으로, △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 Alcohol) △아세트산(Acetic Acid) △페놀(Phenol) 등이 포함됨
- 인도 제약산업의 원자재 수요 중 90%~99%가 석유화학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동 분쟁 발발 이후 일부 화학 원료 비용은 두 배 이상 급등해 중소 제약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임
- 관세 면제 연장 여부가 인도의 글로벌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 공급 경쟁력과 원료의약품(APIs) 공급망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중동 분쟁 장기화 시 인도발 의약품 공급 불안이 글로벌 의료계에 파급될 전망이다

[Whalesbook, 2026.06.10.:ICIS, 2026.06.10.]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미국 암 치료 전문기업 뉴발런트 106억 달러에 인수

GlaxoSmithKline acquires U.S. cancer specialist Nuvalent for \$10.6 billion

- 영국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 GSK)이 6월 9일 미국 매사추세츠주(State of Massachusetts) 보스턴(Boston) 소재 폐암 치료 전문 바이오텍(Biotech) 뉴발런트(Nuvalent)를 106억 달러(한화 15조 7,955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인수 대상 치료제 중 지데삼티닙(Zidesamtinib) 및 넬라달킵(Neladalkib) 2종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시 올해 출시가 가능한 잠재적 최우수 치료제(Best-in-Class)*로 평가됐으며, GSK의 1분기 항암제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23% 성장한 바 있음
- * 동일 계열 의약품 중 △효능 △안전성 △복용 편의성 등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의약품
-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도 미국 시장 공략과 항암제 파이프라인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어, 향후 제약 인수합병 시장에서 항암제 분야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Kuwait Times, 2026.06.09.:GSK, 2026.06.09.]



인도, 5년 내 제약산업 규모 두 배 확대 목표 제시

India targets doubling pharmaceutical industry size within five years

-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장관이 뉴델리에서 열린 ‘글로벌 의약품 규제기관 총회 2026(Global Drug Regulators Conclave 2026, GDRC 2026)’ 및 ‘국제 제약 헬스케어 박람회 2026(International Pharma and Healthcare Expo 2026, IPHEX 2026)’ 행사에서 현재 600억 달러(한화 89조 3,940억 원) 규모의 인도 제약산업이 5년 내 1,000억 달러(한화 149조 400억 원) 이상으로 두 배 성장할 수 있다고 밝힘
- 인도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백신 수요의 65%~70%를 공급하고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제약 제조 시설 수에서 미국 외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제네릭 의약품 공급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조함
- 인도가 미국과의 무역협정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제약산업 성장 목표와 혁신 역량 강화를 공개한 것은 관세 압박 속에서도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내 전략적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로 주목됨

[Moneycontrol, 2026.06.08.:Tribune India, 2026.06.09.]



미국, 트럼프Rx에 처방약 160종 추가해 총 800종 이상으로 확대

U.S. expands TrumpRx by adding 160 more prescription drugs to reach over 800 total

- 미국이 6월 6일 온라인 의약품 직접 구매 포털 트럼프Rx(TrumpRx)에 처방약 160종을 추가해 총 800종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이는 한 달 사이 두 번째 확대로 미국 내 처방전의 약 5건 중 4건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할인 가격에 제공하게 됨
- 트럼프Rx는 2026년 2월 브랜드 의약품 43종으로 출발해 5월 제네릭 의약품 600종 추가 및 6월 처방약 160종 추가 순으로 빠르게 확대됐으며,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약가 협정을 통해 미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2배~4배 높게 지불해온 약가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미국 정부는 트럼프Rx 출시 이후 4억 달러(한화 약 5,960억 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 주도 약가 인하 플랫폼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글로벌 의약품 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여겨짐

[The Hill, 2026.06.06.:Pharmaceutical Commerce, 2026.06.08.]



스위스 기업, 미국 관세 협정 이후 270억 달러 투자 이행

Swiss firms invest \$27 billion in the U.S. following tariff deal

- 주미 스위스 상공회의소(Swiss-American Chamber of Commerce)에 따르면 스위스 기업들이 2026년 1월~4월 미국에 270억 달러(한화 40조 2,330억 원)를 투자했으며, 이는 관세 협정에 따른 5년간 2,000억 달러(한화 298조 220억 원) 투자 약속의 연간 목표 대비 약 40%에 해당함
- 스위스 제약사 로슈(Roche)는 500억 달러(한화 74조 5,050억 원) 규모의 미국 내 제조·연구개발 투자를,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Novartis)는 230억 달러(한화 34조 2,725억 원) 투자를 약속하는 등 제약·의료기기 분야 기업들이 투자를 주도함
- 스위스 기업들이 관세 협정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미국이 강제노동 대응 미흡을 이유로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 기반 추가 관세 12.5% 부과를 예고해 향후 미·스위스 통상 관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Free Malaysia Today, 2026.06.07.:The Star, 2026.06.08.]



SK바이오팜, 미국 뉴저지에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 개설

SK Biopharmaceuticals opens open innovation hub in New Jersey, U.S.

- 한국 제약·바이오기업 SK바이오팜(SK Biopharmaceuticals)이 미국 뉴저지주(State of New Jersey)에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거점 'SK 라이프사이언스 링스(SK Life Science LinX)'를 개설했으며, △현지 정착 지원 △법률·특허 컨설팅 △현지 투자자 연계 등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

* 기업이 외부의 △아이디어 △기술 △자원을 활용해 혁신을 추진하는 개방형 협력 방식

- SK 라이프사이언스 링스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주관 바이오 컨소시엄의 'K-바이오 글로벌 이노베이션 링스(K-Bio Global Innovation LinX)' 프로그램의 거점으로 운영되며, 재미한인제약인협회(Korean American Society in Biotech and Pharmaceuticals, KASBP)도 학술 심포지엄 및 세미나를 통해 현지 전문가 네트워킹을 지원함
- 이번 글로벌 확장이 한국 제약산업의 대미 공급망 내 입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미국의 제약 관세 압박 속에서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시장 현지화 전략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짐

[Yahoo Finance, 2026.06.08.:Investment Monitor, 2026.06.08.]

01 스페인 신경과학연구소, AI·물리 시뮬레이션 결합으로 뇌 MRI 촬영 시간 90% 단축

- 스페인 국립연구위원회(Consejo Superior de Investigaciones Científicas, CSIC)와 미겔 에르난데스 엘체대학교(Miguel Hernández University of Elche)가 공동 설립한 신경과학연구소(Institute for Neurosciences) 연구팀이 AI와 물리 기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결합하여 뇌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촬영 시간을 기존 약 40분에서 약 8분으로 90% 단축하는 기술을 개발함
- 기존 의료 AI가 대규모 실제 환자 데이터로 학습하는 방식과 달리, 연구팀은 뇌 조직 내 수분 확산(Water Diffusion)*의 물리적 원리를 기반으로 생성한 합성(Synthetic) 데이터셋(Dataset)으로 신경망(Neural Network)을 학습시켰으며, 학습된 AI가 기존 측정 데이터의 10%만으로 뇌 미세구조(Microstructure)** 정보를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함

* 뇌 조직 내 수분 분자의 이동 방식을 분석하는 확산 강조 MRI의 핵심 원리

** 뇌 조직의 △세포 △신경섬유 △수초 등 미세적 구조로, 신경퇴행성 질환의 조기 변화를 감지하는 핵심 바이오마커(Biomarker)

- 해당 기술은 촬영 시간 단축 외에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셋 편향 최소화 △환자 모집 불필요 등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의 장점을 갖추고 있으며, 기존에 촬영된 MRI 데이터를 AI로 재처리하여 추가 정보를 추출하는 소급 분석(Retrospective Analysis)***도 가능함

*** 개인의 뇌 구조·생체표지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경 질환을 조기 진단하고 맞춤형 치료를 수립하는 의학 분야

- 연구팀은 이 기술이 알츠하이머(Alzheimer) 등 신경퇴행성 질환의 증상 발현 수십 년 전 미세한 뇌 구조 변화를 조기 감지하는 정밀 신경학(Precision Neurology)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이번 연구는 실제 환자 데이터 의존에서 벗어나 물리 시뮬레이션 기반 AI 학습이 의료 영상의 ①데이터 효율성 ②개인정보 보호 ③임상 접근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줌

[Medical Xpress, 2026.05.27.; ICT&health, 2026.05.28.]

02 바이오허브, 'ESMC'·'ESMFold2' 공개로 암·면역 치료 표적 결합체 설계 성공

-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바이오허브(Biohub)가 약 28억 개 단백질 서열 (Sequence)을 학습한 단백질 언어 모델(Protein Language Model)* 'ESMC (Evolutionary Scale Modeling Cambrian)**와 단백질 구조 예측·설계 엔진 'ESMFold2'를 공개했으며, 두 모델은 단백질의 △구조 △기능 △상호작용 예측을 통해 신약 개발 초기 단계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bi[o]hub

*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자연어처럼 학습하여 단백질의 △구조 △기능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AI 모델

** 극한 환경 생물을 포함한 광범위한 생명체의 서열 데이터와 인체 내 2만여 종 단백질을 학습한 바이오허브의 최신 단백질 언어 모델

- ESMFold2는 암·면역 분야 5개 치료 표적에 대한 고친화성(High-Affinity) 단백질 결합체(Binder)***를 설계했으며, 실험실 검증에서 소형 미니결합체 36%~88%와 항체 유래 형식 15%~29%의 성공률을 달성했고 PD-L1****에 대한 결합체는 T 세포(T cell) 신호 전달을 회복시키는 치료 기능도 확인됨

*** 특정 단백질 표적에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치료 효과를 발휘하도록 설계된 소형 단백질 분자

**** 암세포가 면역 감시를 회피하는 데 활용하는 면역 관문 단백질로, 기존 승인된 항암 면역 치료제와 동일한 경로를 차단함

- 바이오허브는 ESMC의 표현을 활용하여 68억 개 서열·11억 개 예측 구조를 단백질 기능과 연결한 ESM 아틀라스(ESM Atlas)를 오픈소스로 공개했으며, 이 매핑 작업은 실험실에서는 수십억 년이 소요될 분량을 수주 만에 완성한 것임
- 이번 결과는 단백질 설계가 실험 중심의 탐색 방식에서 AI 기반 디지털 예측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오픈소스 단백질 AI 모델이 신약 개발 초기 단계를 가속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GEN, 2026.05.27.; Biopharm International, 2026.05.28.]

03 퀴티언트 사이언스, AI 설계 경구 고형 제제 임상 1상 진입 성공

- 영국 위탁연구개발생산기관(CRDMO) 퀴티언트 사이언스(Quotient Sciences)가 AI로 설계한 경구 고형 제제(Oral Solid Dose Formulation)*의 임상 1상 시험을 영국 의약품·의료기기규제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 승인 하에 개시했으며, 이는 AI 설계 제형(Formulation)**이 임상 평가에 진입한 세계 최초 사례임



* 정제·캡슐 등 입으로 복용하는 고체 형태의 의약품 제형

** 의약품의 △유효성분 △부형제 △제조 공정 등을 최적화하여 원하는 약효를 구현하는 기술적 조합

- 이번 임상시험은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약동학(Pharmacokinetics)***을 평가하며, 퀴티언트 사이언스는 미국 AI 제형 개발 기업 인트레피드 랩스(Intrepid Labs)의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ML)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제형 옵션을 신속하게 탐색하고 최적의 임상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계했음

*** 약물이 체내에 △흡수 △분포 △대사 △배설되는 전 과정을 수치로 분석하는 연구 분야

- 퀴티언트 사이언스는 자사 통합 신약 개발 플랫폼 트랜슬레이셔널 파마슈틱스(Translational Pharmaceutics®)****와 AI를 결합하여 제형 개발 및 임상시험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발 초기 단계부터 더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함

**** 의약품 △제형 개발 △제조 △임상시험을 통합하여 신약 개발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퀴티언트 사이언스의 핵심 서비스 플랫폼

- 이번 임상 진입은 AI가 단순한 연구 보조 도구를 넘어 제형 설계와 임상 의사결정의 핵심 주체로 자리잡는 신약 개발 패러다임 전환의 첫 실증 사례로 주목됨

[Quotient Sciences, 2026.05.28.:PR Newswire, 2026.05.28.]

04 사노피 인도, AI 기반 희귀질환 사전 진단 도구 ‘엑셀레이어’ 출시

-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Sanofi) 인도 법인이 AI 기반 디지털 사전 진단 도구 ‘엑셀레이어(AccelRare®)’를 인도 시장에 공식 출시했으며, 310개 희귀질환을 88% 이상의 정확도로 감별 진단할 수 있어 의사들의 조기 진단을 지원함
- 인도희귀질환기구(Indian Organisation of Rare Diseases, IORD)에 따르면, 인도에는 약 7,200만 명~9,600만 명의 희귀질환자가 있으나 인도 의사의 43%가 희귀질환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없으며 정확한 진단이 늦어지는 사이 소아 환자에게 비가역적 손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함
- 엑셀레이어는 웹 기반으로 무료 제공되며 회원가입이나 환자 개인정보 수집 없이 사용 가능하고, 의사가 △증상 △병력 △검사 결과를 입력하면 5분~10분 이내에 상위 5개 의심 질환과 추가 검사 및 전문 센터 정보를 제공함
- 이 도구는 13개 국제 희귀질환 네트워크 소속 67명의 전문가가 공동 개발·검증했으며, 유럽에서 클래스 I(Class I) 의료기기*로 인증된 메드비어(MedVir™)** 기술을 기반으로 인도에서는 클래스 A(Class A) 의료기기***로 승인됨

* 유럽 의료기기 규정(Medical Device Regulation, MDR)상 위험도가 가장 낮은 등급으로, 단순 소프트웨어·진단 보조 도구 등이 해당됨

** 엑셀레이어가 구동되는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유럽 클래스 I 의료기기로 인증됨

*** 위험도가 낮은 비멸균·비촉정 의료기기 등급으로, 인도 중앙의약품표준통제기구(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sation, CDSCO) 분류 체계에서 가장 낮은 위험 범주에 해당함

- 이번 출시를 사노피가 AI를 신약 개발·임상시험을 넘어 실제 진료 현장에 직접 적용한 사례이며, 이는 제약사의 AI 활용 범위가 점차 환자 접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환점으로 여겨짐

[DHN, 2026.05.28.:Pharma India Magazine, 2026.05.30.]

05 코레디오, FDA로부터 심부전 혈액학 평가 플랫폼 'CPSE™' 혁신 의료기기 지정 획득

- 미국 디지털헬스 기업 코레디오(Coredio)가 심부전(Heart Failure, HF) 혈액학(Hemodynamic)* 평가에 특화된 AI 기반 플랫폼 '심장 성능 시뮬레이션 엔진(Cardiac Performance Simulation Engine, CPSE™)'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혁신 의료기기 지정(Breakthrough Device Designation, BDD)**을 획득하였으며, 총제품수명주기 자문 프로그램(Total Product Life Cycle Advisory Program)***에도 편입됨

* 심장과 혈관 내 혈액의 △흐름 △압력 △저항 등을 측정해 심장 기능 상태를 파악하는 평가 방식

** FDA가 중증 질환을 치료·진단하는 혁신적 의료기기에 부여하는 지정으로, 신속한 심사 및 우선 검토 경로를 제공함

*** FDA가 의료기기 개발 초기 단계부터 허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는 자문 프로그램

- 심부전은 미국 내 670만 명 이상이 앓고 있으며, 기존 혈액학 평가는 심장 카테터 삽입술(Cardiac Catheterization)****에 의존해 전체 환자의 약 10%에게만 시행되는 실정임

**** 가느다란 관을 혈관을 통해 심장까지 삽입해 심장 내부의 압력과 혈류를 직접 측정하는 침습적 검사법

- CPSE™는 소비자용 스마트워치와 일반 혈압계만으로 ①좌심실 이완기말 압력(Left Ventricular End-Diastolic Pressure, LVEDP) ②중심정맥압(Central Venous Pressure, CVP) ③전신혈관저항(Systemic Vascular Resistance, SVR) ④심박출 계수(Cardiac Index, CI) 4가지 핵심 혈액학 지표를 비침습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번 BDD 획득으로 코레디오는 510(k) 허가 신청을 위한 우선심사 경로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심장 데이터를 가정과 외래 환경으로 확장해 퇴원 후 고위험 시기의 의료 공백을 줄일 것으로 전망됨

[Yahoo Finance, 2026.05.28.;Business Wire, 2026.05.28.]

06 다이아젠스, AI 염색체 핵형 분석 소프트웨어 'AI 오토비전' 중국 최고 등급 의료기기 승인 획득

- 중국 의료 AI 기업 다이아젠스(Diagens)가 자사 AI 기반 염색체 핵형(Chromosome Karyotype)* 보조 진단 소프트웨어 'AI 오토비전(AI AutoVision®)'에 대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NMPA)으로부터 클래스 III(Class III) 의료기기 등록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는 의료 영상 AI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최고 등급 승인 사례임



* 세포 내 46개 염색체를 현미경으로 △식별 △분류 △배열해 수적·구조적 이상을 진단하는 검사

- 기존 염색체 핵형 분석은 숙련된 분석가가 현미경으로 염색체를 수동 판독하는 방식으로 건당 평균 34분이 소요되고 보고서 발행까지 약 30일이 걸렸으며, 전문 인력 양성에도 3년~5년이 필요해 구조적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돼 왔음

- AI 오토비전은 의료 영상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 아이메드이미지(iMedImage®)를 기반으로 염색체 자동 △분할 △계수 △배열 및 이상 탐지를 구현했으며, 다기관 임상시험에서 수적 이상 탐지의 민감도(Sensitivity)·특이도(Specificity)가 각각 100%를 기록하고 분석·보고서 발행 기간을 대폭 단축함

** 대규모 의료 영상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범용 AI 모델이며, 다양한 질환·장기 분야에 재활용 가능한 AI 인프라

- 다이아젠스는 현재 65개 주요 병원과 파트너십을 통해 32개 인체 기관 및 64개 질환 분야를 커버하는 92개 영상 모델을 개발 중이며, 중국 내 400개 이상 의료기관에 제품을 배포해 염색체 핵형 분석 분야 중국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음

- 또한, 기술 라이선싱(Technology Licensing) 매출은 전년 대비 331.7% 급증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번 승인을 계기로 의료 영상 AI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됨

[GlobeNewswire, 2026.05.27.;Yahoo Finance, 2026.05.27.]

07 코너스톤 로보틱스, AI 기반 내시경 수술 로봇 플랫폼 '센티어' 유럽 CE 마킹 획득

- 홍콩 의료기기 기업 코너스톤 로보틱스(Cornerstone Robotics)가 AI 기반 내시경 수술 로봇 플랫폼 '센티어(Sentire)'에 대해 유럽 의료기기 적합성 인증인 CE 마킹을 획득했으며, 이미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승인을 보유한 데 이어 유럽 시장에 공식 진출함
- 이번 CE 마킹은 △일반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분야의 최소 침습 수술*에 적용 가능하며, 코너스톤 로보틱스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산하 포츠머스 대학병원(Portsmouth Hospitals University NHS Trust, PHU)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임상 평가 및 실사용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며 유럽 상업화 기반을 마련해 왔음
- * 피부 절개를 최소화하고 내시경·로봇 등을 활용한 수술 방식으로, 전통적 개복 수술 대비 회복 기간이 짧고 합병증 위험이 낮음
- 센티어는 체화 지능(Embodied Intelligence)** 기반의 AI를 탑재해 △실시간 피드백 △지능형 제어 알고리즘 △냉광원(Cold Light) 기술 △김서림 방지 시각화 기능을 통합했으며, 외과вра가 복잡한 술기를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 설계를 적용함
- ** AI가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자율적으로 동작을 수행하는 기술로, 로봇 수술의 정밀도와 일관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
- 코너스톤 로보틱스는 2025년 8월 홍콩중문대학교(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CUHK) 연구진과의 협업으로 수술 자동화 기술을 고도화했으며, 같은 해 11월 글로벌 상업화 가속을 위한 2억 달러(한화 2,98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함
- 이번 CE 마킹 획득은 중국에 이어 유럽 시장까지 규제 승인을 확보한 것으로, 코너스톤 로보틱스가 기술 혁신 기업에서 글로벌 임상 솔루션 공급자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MassDevice, 2026.05.25.:VOH Network, 2026.05.26.]

08 렉투리오, AI 기반 의료·간호 교육 플랫폼으로 역량 중심 훈련 체계 전환 주도

- 독일 의료 에듀테크(EduTech) 기업 렉투리오(Lecturio)가 AI 기반 의료·간호 교육 플랫폼을 고도화해 단순 콘텐츠 전달 방식에서 역량 중심 임상 추론(Clinical Reasoning)* 훈련 체계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으며, ①의료 교육 담당자들의 번아웃(Burnout) ②글로벌 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 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수단으로 주목됨
- * 의사·간호사가 환자 증상과 검사 결과를 종합해 진단 및 치료 방향을 판단하는 사고 과정
- 플랫폼의 'AI 수업 계획 생성기(AI Lesson Plan Generator)'는 의과대학·간호대학 교원이 커리큘럼에 맞는 모듈을 수일에서 수시간 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AI 튜터(AI Tutor)'는 학생 개인의 지식 격차를 파악해 임상 시나리오 기반의 맞춤형 학습을 제공함
- 렉투리오는 영상 기반 의료 절차 실습 교육 플랫폼 심튜터(SimTutor)를 인수해 인터랙티브 영상 오버레이(Interactive Video Overlay)** 기반 실습 교육 기능을 추가했으며, 미국 의학 저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 그룹이 개발한 임상 추론 교육·평가 도구 힐러(Healer)도 플랫폼에 통합함
- ** 영상 위에 △퀴즈 △설명 △선택지 등의 상호작용 요소를 덧입혀 학습자가 영상을 보며 직접 반응하도록 설계된 학습 방식
- 또한, 유럽 전역 1,000만 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①재난 응급 처치 ②재난 정신건강 ③기본 소생술 교육 보급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의료 교육 확산 캠페인 '에이드업(AidUp)'을 추진하고 있음
- 이번 확장은 의료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글로벌 의료 인력 위기 해소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짐



[Yahoo Finance, 2026.05.28.:EIN Presswire, 2026.05.28.]

09 코디야르 테크노베이션-지멘스, 인도 제약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위한 'CXO 밋' 개최

- 인도 기술 기업 코디야르 테크노베이션(Khodiyaar Technovation)과 독일 글로벌 기술 기업 지멘스(Siemens)가 인도 암다바드(Ahmedabad)에서 제약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과 글로벌 규제 준수를 주제로 'CXO 밋(CXO Meet)**'을 공동 개최함



* 기업이 △AI △자동화 △데이터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생산 △품질관리 △규제 대응 방식을 혁신하는 과정

** 기업의 최고위 임원(C-level)들이 모여 산업 현안과 전략 방향을 논의하는 고위급 업계 회의

- 인도는 전 세계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의 약 20%와 백신의 50% 이상을 공급하며 '세계의 약국'으로 불리고 있고, 구자라트(Gujarat)주는 인도 전체 제약 매출의 30% 이상과 수출의 28%를 담당하는 4,000개 이상의 제조 시설을 보유한 핵심 생산 거점임
- 이번 행사에서는 ①디지털 스레드(Digital Thread)*** ②디지털 연구개발 ③시뮬레이션 기반 제품·공정 설계 ④전자 배치 기록(Electronic Batch Records, EBR) 및 스마트 제조 ⑤저코드(Low-code) 디지털 혁신 ⑥산업용 AI를 활용한 글로벌 규제 준수 방법론의 6개 세션이 진행됐으며, 시뮬레이션 기반 설계 도입 시 신약의 시장 출시 기간을 20%~30% 단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됨

*** 제약 제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디지털로 연결·추적해 품질 관리와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는 시스템

- 전문가들은 주요 규제 기관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페이퍼리스(Paperless)**** 제조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으며, AI 기반 실시간 품질 모니터링이 규제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밝힘

**** 생산 기록·품질 데이터 등을 종이 문서 대신 디지털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감사 효율성과 데이터 추적성을 높임

- 이번 행사는 글로벌 의약품 수요 증가와 규제 강화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인도 제약산업이 AI·자동화 기반의 스마트 제조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경쟁력 유지의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됨

[Newz Daddv, 2026.05.27.;News Monks, 2026.05.28.]

10 미국 제네릭 의약품 국내 생산 촉진, ANDA 비용 인하 두고 의견 엇갈려

- 미국 비영리 정책 연구기관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현재 미국 내 유통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의 약 80%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극심한 가격 경쟁과 박리다매 구조가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GMP)*을 약화시켜 2022년 기준 의약품 부족 사태의 46%를 유발했다고 분석함

*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 전 과정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 기준

- 그러나 미국 온라인 약국 코스트플러스 드럭스(Cost Plus Drugs) 창업자는 제네릭 신약 허가 신청서(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ANDA)** 비용이 건당 35만 8,247달러(한화 5억 3,381만 원)에 달해 국내 생산의 경제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함

**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의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제네릭 의약품 제조 허가를 신청하는 간소화 절차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심사 운영 비용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함

- 실제로 로봇틱스(Robotics)와 AI 기반으로 신약 출시 비용을 낮춘 코스트플러스 드럭스의 경우 ANDA 비용 비중이 타 제약사 대비 상대적으로 크며, 1,000개 품목 기준 약 3억 6,500만 달러(한화 5,44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미국 내 생산 거점 구축을 가로막는 핵심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ANDA 비용 인하의 실효성에 대해 코스트플러스 드럭스 측은 비용 인하 시 18개월 내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ANDA 비용이 전체 출시 비용의 일부에 불과해 결정적 요인이 되기 어려우며 국내 생산 확대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의약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함

[Brookinas Institution, 2026.03.24.;Healthcare Brew, 2026.05.27.]

11 에임 메디컬 로보틱스-지멘스 헬시니어스, MRI 연동 뇌수술 로봇 플랫폼 통합 협약 체결

- 미국 의료 로봇 기업 에임 메디컬 로보틱스(AiM Medical Robotics, AiM)의 자기공명영상(MRI) 호환 뇌수술 로봇 플랫폼을 독일 의료기기 기업 지멘스 헬시니어스(Siemens Healthineers)의 MRI 시스템과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Software Interface) 개발 협약을 체결했으며, 차세대 정밀 로봇 수술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함
- 이번 통합은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자기장 세기별 MAGNETOM MRI 시스템(1.5T·3T·0.55T) 전 라인업에 적용되며, 에임 메디컬 로보틱스의 입체정위(Stereotactic)* 뇌수술 로봇이 MRI 장비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며 수술하는 인보어(In-bore) 수술을 가능하게 함
 - * 뇌 내부의 특정 목표 지점을 3차원 좌표계로 정밀하게 계산해 접근하는 수술 기법
- 해당 플랫폼은 △뇌심부자극기(Neurostimulator) 전극 삽입 △종양·뇌전증 절제 △조직 생검(Biopsy)** △약물 전달 등 다양한 정밀 영상 유도 기술을 지원하며, 기존 개두술 없이 최소 침습 방식으로 뇌 깊은 부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됨
 - ** 진단 목적으로 병변 부위의 조직 일부를 채취해 현미경으로 분석하는 검사 방법
-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자사의 제3자 협력 프레임워크(Framework) 하에 에임 메디컬 로보틱스와의 소프트웨어 동기화 및 호환성 확장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에임 메디컬 로보틱스 측은 이번 협력이 글로벌 기술 검증과 함께 영상 유도 수술실로의 임상 배포 로드맵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협약은 로봇 수술과 의료 영상 시스템의 실시간 연동이라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진전으로, MRI 유도 뇌수술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며 광범위하게 보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됨



[Yahoo Finance, 2026.05.27.:Medical Device Network, 2026.05.27.]

12 우라, FDA 정책 변화에 따라 스마트링에 혈압 모니터링 기능 추가

- 핀란드 스마트링 기업 우라(Ōura)가 신제품 ‘우라 링 5(Ōura Ring 5)’ 출시와 함께 6월 중 야간 혈압 패턴 추적 기능과 30일간 야간 호흡 데이터 열람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026년 1월 혈압 측정 웨어러블(Wearable)*에 대한 규제 방침을 완화한 데 따른 것임
 - * △손목 △손가락 △귀 등 신체에 착용해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전송하는 스마트 기기
- 이번 혈압 모니터링 기능은 의료기기가 아닌 웰니스(Wellness)** 도구로 분류되어 FDA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축기·이완기 혈압 수치를 직접 표시하지 않고 야간 혈압 변화 추세와 수면·운동 등 일상 습관과의 연관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설계됨
 - ** 질병 치료가 아닌 건강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 방식 전반을 의미함
- 우라는 이와 별도로 고혈압(Hypertension) 위험을 감지하는 기능을 연구 중이며, 이 기능은 FDA 의료기기 허가 절차를 거칠 예정임
- 또한, 미국 수면 무호흡증(Sleep Apnea) 치료 장비 전문 기업 레즈메드(ResMed)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호흡 이상 징후 감지 시 전문의 상담·수면 평가로 연결하는 기능을 추가했으며 미국 AI 기반 가상 진료 기업 카운셀 헬스(Counsel Health)와의 협력으로 진단·검사 결과 등 건강 기록 가져오기 기능도 도입함
- 우라는 2026년 5월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를 신청하며 헬스케어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번 혈압 모니터링 기능 추가는 웨어러블 기기가 단순 건강 추적을 넘어 임상 수준의 건강 관리 도구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기업이 주식을 처음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 판매하는 절차로, 자금 조달과 기업 가치 공인을 목적으로 함

[MedTech Dive, 2026.05.28.:Yahoo Tech, 2026.05.28.]

13 코즘 메디컬, 듀크 헬스·메이요 클리닉과 골반 수술 후 맞춤형 회복 기기 개발 협약 체결

- 캐나다 의료기기 기업 코즘 메디컬(Cosm Medical)이 미국 듀크 헬스(Duke Health)·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과 골반 재건 수술 후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질내 삽입 기기 ‘자이네소틱스 리커버리(Gynethotics™ Recovery)’ 개발·상업화를 위한 라이선싱 및 협력 협약을 체결함
- 자이네소틱스 리커버리는 코즘 메디컬의 디지털 부인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의료 영상과 3D 프린팅을 결합해 환자 개인의 해부학적 구조에 맞춘 생체적합성(Biocompatibility)* 기기를 제작하며, 기존의 획일적인 사이즈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 맞춤형 수술 후 회복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함

* 인체 조직과 접촉하거나 삽입되었을 때 독성·염증 반응 없이 안전하게 기능하는 소재의 특성

- 이번 협약은 △제품 평가 △임상 검증 △상업화 가능성 확인에 집중하며, 코즘 메디컬은 △정형외과 보조기 △치과 보조기 △청각 보조기 분야에서 이미 확립된 맞춤형 제작 기준을 부인과 분야에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코즘 메디컬은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골반 장기 탈출증** 치료용 맞춤형 페서리(Pessary)*** 기기 ‘자이네소틱스 페서리즈(Gynethotics™ Pessaries)’에 대한 허가를 획득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적용 범위를 수술 후 회복 영역으로 확장함

** 골반 내 장기인 △자궁 △방광 △직장 등이 골반저 근육의 약화로 질 밖으로 내려오는 질환

*** 골반 내부에 삽입해 탈출된 장기를 물리적으로 지지하는 의료용 보조 기구

- 코즘 메디컬이 부인과 의료기기 분야에서 정밀의료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접근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 골반 건강 치료의 새로운 표준 수립을 향한 전환점으로 보여짐

[Duke OTC, 2026.05.27.:Business Wire, 2026.05.27.]

14 바이오카디아, 허혈성 심부전 세포치료제 ‘카디앰프’ 일본 허가 신청 지지 자문 기록 확보

- 미국 심혈관 세포치료 기업 바이오카디아(BioCardia)가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PMDA)로부터 허혈성 심부전(Ischemic Heart Failure)* 세포치료제 ‘카디앰프(CardiAMP®)’의 규제 허가 신청을 지지하는 자문 기록(Consultation Record)을 확보함

BIOCARDIA

*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심부전의 한 유형

- 앞서 PMDA는 카디앰프의 임상 안전성·유효성 근거가 시장 허가를 지지하기에 충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번 자문 기록은 3건의 완료된 임상시험을 기반으로 △허가 신청 전 해결 과제 △시판 후 조사 계획 △일본 학술단체와의 가이드라인 수립 협력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함
- 카디앰프는 환자 자신의 골수 세포(Bone Marrow Cell)를 카테터(Catheter)를 통해 심장에 직접 전달하는 자가 세포치료제(Autologous Cell Therapy)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혁신 의료기기 지정(BDD)을 받은 바 있음

- 일본 내 허혈성 심부전 환자는 약 30만 명으로, PMDA는 이 중 심장 스트레스 바이오마커(Cardiac Stress Biomarker)** 수치가 높고 혈관 재개통술 대상에서 제외된 약 2만 명이 초기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함

** N-말단 프로B형 나트륨이뇨펩타이드(N-terminal pro-B-type Natriuretic Peptide, NTproBNP)로,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 정도를 반영하는 혈액 내 단백질 지표

- 바이오카디아는 7개월 내 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자문 기록 확보는 허혈성 심부전 분야에서 세포치료제가 일본 시장에 진입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됨

[The Manila Times, 2026.05.28.:GlobeNewswire, 2026.05.28.]

15 글로벌 화장품 펩타이드 합성 시장, 2032년 3억 3,130만 달러 규모 성장 전망

- 영국 시장조사기관 펄시스턴스 마켓 리서치(Persistence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화장품 펩타이드(Cosmetic Peptide) 합성 시장은 2025년 약 2억 2,620만 달러(한화 3,370억 원) 규모에서 연평균 5.6% 성장률로 확대되어 2032년 3억 3,130만 달러(한화 4,93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성장 동력으로는 △바이오텍(Biotech) 분야 투자 확대 △항노화 스킨케어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 △맞춤형 뷰티 솔루션 트렌드 가속화가 꼽히며, 2025년 기준 항노화 펩타이드가 시장의 52.3%를 차지하는 주요 제품군으로 부상함
- 제품 유형별로는 피부 재생 촉진에 특화된 시그널 펩타이드(Signal Peptide)*가 2025년 기준 35.4%의 시장 점유율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북미가 38.5%의 점유율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 세포에 생화학적 신호를 전달해 콜라겐 합성·세포 재생 등 특정 생물학적 반응을 유도하는 펩타이드 유형
- 마이크로파 보조 고상 합성 시스템(Microwave-assisted Solid-phase System)** 기술의 발전으로 펩타이드 합성 주기가 기존 수 주에서 수일로 단축되었으며, 머신러닝(ML) 기반 예측 모델이 85% 이상의 정확도로 펩타이드의 안정성과 피부 흡수율을 예측해 제형 개발 효율을 높이고 있음
- **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활용해 고체 지지 기반 펩타이드 합성 반응을 가속하는 기술로, 기존 방식 대비 합성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함
- 고생산 비용과 규제 장벽이 과제로 남아 있으나 △지속가능한 합성 기술 △AI 기반 제형 개발 △첨단 분자 기술 혁신이 이를 보완하고 있으며, 화장품 펩타이드 합성 시장은 과학적 근거를 갖춘 고기능성 스킨케어 원료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Persistence Market Research, 2026.05.:Open PR, 2026.05.28.]

16 데뷔-나투라, AI 기반 피부 장수 성분 복합체 공동 개발·상업화 파트너십 체결

- 미국 바이오텍(Biotech) 뷰티 기업 데뷔(Debut)와 브라질 뷰티·퍼스널케어(Personal Care) 기업 나투라(Natura)가 데뷔의 AI 기반 플랫폼으로 발굴한 피부 장수(Skin Longevity) 성분 복합체를 공동 개발·상업화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임상 검증 완료 시 2027년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데뷔의 AI 플랫폼은 유전체학(Genomics)* 기반 분자 설계를 활용해 960억 개의 분자 가능성을 수일 내 선별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방식으로는 약 12만 5,000년이 소요되는 작업량으로 AI가 기존 화장품 원료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있음을 보여줌
- * DNA·RNA 등 생물체의 전체 유전 정보를 분석해 피부와 분자 간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과학 분야
- 나투라는 25년 이상 아마존 열대우림의 사회적 생물다양성 원료를 활용해 왔으며, 44개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해 220만ha의 산림을 보존하고 46종의 고유 식물 추출 성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협력에서 천연 바이오액티브(Bioactive)** 전문성을 제공함
- ** 생물학적 활성을 지닌 천연 성분으로, 피부 세포에 직접 작용해 보습·재생·항산화 등의 기능을 발휘함
- 브라질 항노화 시장은 2024년 10억 달러(한화 1조 4,901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며 2033년까지 두 배 이상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파트너십은 데뷔의 라틴아메리카 시장 진출과 나투라의 첨단 기술 역량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적 의미를 지님
- 이번 파트너십은 AI 기반 정밀 바이오텍 기술과 아마존 천연 원료 전문성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화장품 혁신을 제시했으며, 이는 과학적 근거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뷰티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줌



[BriefGlance, 2026.05.27.:PR Newswire, 2026.05.27.]

17 BRICS 국가, 원격의료를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요소로 채택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40%의 국가에서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가 10명 미만으로, 브릭스(BRICS)* 국가들은 넓은 영토로 인한 의료 접근성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의료를 의료 시스템의 필수 요소로 도입하고 있음

* ①브라질 ②러시아 ③인도 ④중국 ⑤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의 영문 첫 글자를 딴 신흥 경제국 협의체

- 중국은 수천 개 병원과 수천만 명을 연결하는 대규모 원격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터넷 플러스 헬스케어(Internet Plus Healthcare)'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기준 전국 모든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인도는 2021년 9월부터 '아유슈만 바라트 디지털 미션(Ayushman Bharat Digital Mission, ABDM)**'을 시행하여 올해 초 기준 8억 5,000만 건 이상의 디지털 건강 등록 계정을 생성하였고, 45만 4,000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함

**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통합 디지털 의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 브라질과 중국은 스마트 병원 구축에 협력하고 있으며, 상파울루대학교(University of Sao Paulo) 의과대학 부속 임상병원에서 △AI 진단 시스템 △5G*** 기반 구급 서비스 △온라인 원격 상담 기술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 5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기존의 LTE(4G) 대비 훨씬 빠르고 많은 데이터를 지연 없이 연결해 주는 차세대 무선 통신 기술

- 전문가들은 BRICS 국가들이 △디지털 격차 △규제 불일치 △데이터 보안 문제 등 공통 과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공동 투자 및 공통 표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원격의료 시스템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술적 요소 외에도 원격의료 및 AI 도구에 대한 공공의 신뢰 확보가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언급함

[Digital Health News, 2026.05.19.;Rock Hill Herald, 2026.05.21.]

18 베트남 닥터케어 임플란트 클리닉, 체계적인 치료 프로세스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 베트남 호치민시(Ho Chi Minh City)에 위치한 닥터케어 임플란트 클리닉(Dr. Care Implant Clinic)이 상세한 치료 계획과 단계별 임상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유럽 △호주 △북미 각국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있음



- 클리닉은 외국인 환자를 위해 ①사전 온라인 상담 ②1차 방문(△검진 △수술 △임시 보철) ③골유착(Osseointegration)* 기간 원격 모니터링 ④2차 방문(최종 보철 장착)의 4단계 치료 프로세스를 운영함

* 인공 보철물(티타늄 등)이 살아있는 뼈와 물리적, 화학적으로 직접 결합하는 생물학적 현상

- 임플란트 수술에는 AI 기반 내비게이션 시스템인 'DCARER'를 활용하며, 최종 보철 제작 시에는 3셰이프 트리오스(3Shape TRIOS)** 구강 내 스캐너로 디지털 구강 데이터를 확보함

** 덴마크의 3D 치과 의료기기 전문 기업 3셰이프(3Shape)에서 개발한 AI 기반의 디지털 구강 스캐너

- 베트남의 올온포(All-on-4) 임플란트*** 비용은 4,360달러~5,960달러(한화 649만 원~888만 원)로, 호주 및 미국의 동일 시술 비용인 25,000달러~40,000달러(한화 3,725만 원~5,960만 원) 대비 현저히 낮음

*** 치아가 전혀 없는 환자의 턱뼈에 단 4개의 임플란트만 식립하고, 그 위에 전체 치아 형태의 고정식 보철물을 연결하는 임플란트 시술

- 클리닉 측은 임플란트 시술 종류에 따라 20년~30년의 품질 보증을 제공하며, 다수의 외국인 환자들이 치료 일정에 맞춰 △다낭(Da Nang) △호이안(Hoi An) △푸꾸옥(Phu Quoc) △하노이(Hanoi) 등 베트남 국내 여행을 일정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함

[Báo VietNamNet, 2026.05.27.;VnExpress, 2026.05.28.]

19 이집트 보건부, 엘 알라메인 병원 내 국가 의료관광 프로젝트 확대 추진

- 이집트 보건인구부(Ministry of Health and Population)가 엘 알라메인 신도시(New El Alamein City)를 의료서비스 및 의료관광 통합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한 국가 주요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음
 - 핵심 사업인 엘 알라메인 모델 병원(El Alamein Model Hospital)은 북부 해안 지역의 주요 현대 의료 시설로 성장하였으며, △수술실 △중환자실 △투석실 △영상의학 △전문 클리닉 등을 보유하고 최신 의료 장비와 디지털 전환 기술 및 AI를 기반으로 24시간 운영 중임
 - 이집트 보건부는 해당 병원 내 국가 의료관광 프로젝트 시행을 확대하여 국내외 환자를 유치하고, 「이집트 비전 2030(Egypt's Vision 2030)*」에 따라 엘 알라메인 신도시를 지역 의료 거점으로 전환할 계획임
- *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2030년까지 이집트를 △경제 △국가 경쟁력 △국민 행복 △인적 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30위권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2016년 이집트 정부가 발표한 국가 장기 경제개발 계획
-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으로는 최대 950병상 규모의 ‘사키나 정신건강 병원(Sakina Mental Health Hospital)’ 프로젝트가 있으며, 해당 병원은 이집트 최대 규모의 정신건강 시설 중 하나로 정신질환 및 중독 환자 대상 치료와 재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 또한, 의료 기술 지원의 일환으로 미국 의료기기 기업인 GE 헬스케어(GE HealthCare)와 협력한 초음파 기기 국내 생산 프로젝트 추진 및 의료·기술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시뮬레이션 센터(Training and Simulation Centers) 설립도 논의함



[Egypt Today, 2026.05.28.;Egypt State Information Service, 2026.05.29.]

20 인도, 원격 로봇 수술로 ‘의료관광’에서 ‘의료 수출’ 시대로 전환

- 인도 뭄바이(Mumbai)에 위치한 코킬라벤 디루바이 암바니 병원(Kokilaben Dhirubhai Ambani Hospital)의 로봇 수술 책임자는 5G 기반 초저지연 네트워크와 첨단 로봇 수술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 수술(Telesurgery)의 시대가 열리며, 기존 ‘의료관광’에서 ‘의료 수출’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함
 - 원격 수술에 활용되는 메드봇 투마이(Medbot Toumai) 시스템은 두 개의 수술 제어 장치를 환자 측 로봇 본체에 연결하고, 실시간으로 외과의의 손 동작을 디지털 신호로 전송해 로봇 기구가 즉각 반응하는 방식으로 작동함
 - 원격 수술의 핵심 과제인 레이턴시(Latency)*의 글로벌 허용 기준은 100밀리초~15밀리초이며, 100밀리초 미만일 경우 현지 수술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외과의가 5분~10분 내에 적응 가능함
- * △IT △네트워크 △음향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어떤 요청을 보낸 후부터 응답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 또한, 연결 장애 상황에 대비해 수술 내내 현지 병원에 시니어 외과의를 포함한 전담 팀이 상주하며 표준 로봇 또는 개복 수술로 전환하는 안전 프로토콜이 마련되어 있음
 - 인도의 5G망은 현재 거의 전 지역에 보급되었으나, 티어 2(Tier-2)** 도시 전반에 걸친 원격 로봇 수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신뢰성 △전문 인력 교육 △의료 규제 체계 정비 등 우선 과제로 남아 있음
- ** 티어 1(Tier-1)에 비해 저렴한 운영비용, 준수된 인력,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급성장 중인 거점 도시들
- 책임자는 2030년까지 자율 수술의 표준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로봇과 AI가 외과의 역량을 보조하는 증강수술(Augmented Surgery) 형태로 발전하며 환자가 국경을 넘지 않고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수출’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함

[The Print, 2026.05.26.;Firstpost, 2026.05.27.]

21 인도 머스크 클리닉, 글로벌 수준의 의료 기준과 로봇 기술로 해외 거주 인도인 환자 유치

- 인도 암다바드(Ahmedabad)에 위치한 머스크 클리닉(Musk Clinic)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기술과 글로벌 수준의 위생 및 안전 프로토콜을 도입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각국의 해외 거주 인도인(Non-Resident Indians, NRIs) 및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있음
- 인도의 모발 이식 의료관광 분야는 연간 35만 건 이상의 시술이 진행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IMARC 그룹(IMARC Group)은 해외 거주 인도인 및 외국인 환자 수요를 중심으로 203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2% 이상의 성장을 전망함
- 머스크 클리닉은 인도 최초로 ‘아타스 9X 로봇 모발 이식 시스템(ARTAS 9X Robotic Hair Transplant System)’을 도입하였으며, AI를 활용해 건강한 모낭을 정밀 채취함으로써 흉터 없이 자연스러운 시술 결과를 제공함
- 의료 책임자는 미국 뉴욕 등지에서의 글로벌 임상 경험을 보유한 두개 안면(Craniofacial)* 전문 외과의로, 외국인 환자와의 의사소통 능력과 장기적 치료 목표 설정을 강조함
- * 머리(두개골)와 얼굴(안면부)을 함께 지칭하는 의학적·해부학적 용어
- 또한, 수술실 위생부터 시설 설계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게 구성하였으며, 글로벌 방문객의 일정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맞춤형 운영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함



[Bia News Network.com, 2026.05.28.;IMARC Group, 2026.]

22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 ‘C37’ 플랫폼 통해 글로벌 의사 파트타임 진료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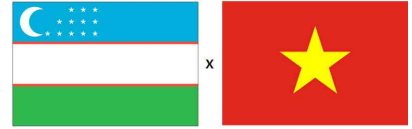
-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Dubai Healthcare City, DHCC)*가 운영하는 민간 의료 공간 플랫폼 ‘C37’이 글로벌 및 UAE 현지 의사들에게 영구적인 클리닉 개설 없이 유연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두바이의 의료서비스 전달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
- * 2002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의료 및 웰니스 중심의 경제 자유구역
- C37은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가입 의사에게 △임상 공간 △간호 및 행정 지원 △예약 관리 △청구·수납 △IT 지원 △의료 과실 보험 △비자 및 면허 취득 지원 등 원스톱 운영 지원 서비스를 ①일별 ②주별 ③월별 선택 방식으로 제공함
- C37 의료 책임자는 글로벌 전문의들이 새로운 의료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면허 취득 △비자 절차 △임상 공간 확보 △인력 채용 등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또한, 환자들의 글로벌 원정 진료 필요성을 줄이는 동시에 △질 높은 전문 진료 △2차 의견(Second Opinion)** △다국가 활동 의사와의 지속적인 진료 연계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특히 유용함
- ** 환자가 현재 주치의에게 진단이나 치료 방침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제2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다른 전문의에게 다시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
- 책임자는 개방형 의료 공간 모델이 기존의 병원과 클리닉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방식으로, 엄격한 규제 체계 안에서 의사들의 효율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 변화에 대한 의료 시스템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언급함



[Khaleeji Times, 2026.05.29.;Hello Mumbai News, 2026.06.04.]

23 우즈베키스탄-베트남, 전통의학 및 통합의학 분야 의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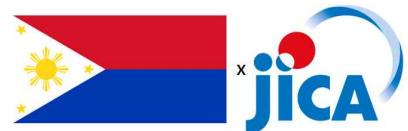
- 베트남 국립 호치민시대학교 보건과학대학(University of Health Sciences of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 UHS)과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산하 전통의학 과학실용센터(Republican Scientific and Practical Center of Folk Medicine, RSPCFM)가 2026년 5월 26일 온라인 협약식을 통해 전통의학 및 통합의학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침술 △식물요법(Phytotherapy)* △비약리적 치료법 등 전통의학 분야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됨
- * 식물(Phyto)과 치료(Therapy)의 합성어로, 식물의 추출물이나 유효 성분을 활용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과학적 기반의 식물요법
- 양국은 △약용 식물 연구 △민족약리학(Ethnopharmacology)** △임상 전통의학 분야 공동 연구와 함께 교수와 전문가,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에도 합의함
- ** 특정 민족이나 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약용 식물 △동물 △광물 등의 천연 자원을 현대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
- 협약식에는 우즈베키스탄 측에서는 △RSPCFM 경영진 △보건부 전문가 △글로벌 의료 전문가가, 베트남 측에서는 UHS 대학 경영진 및 전통의학과 대표가 참석함
-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전통의학 분야의 학술·임상 교류가 본격화되고, 두 나라의 전통의학 연구 및 교육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UzDaily, 2026.05.28.]

24 필리핀 대통령, 일본국제협력기구 총재와 회담 ... 헬스케어 협력 확대 논의

- 필리핀 대통령이 일본 도쿄(Tokyo) 오쿠라 호텔(Okura Hotel)에서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총재와 회담을 갖고 △헬스케어 △인프라 현대화 △기후 회복력 △경제 안정 분야 협력을 논의함
- 일본국제협력기구는 2026 일본 회계연도 기준 추진 중인 신규 차관(借款)* 9건 중 하나로 '보편적 의료서비스 구축 프로그램 3단계(Build Universal Health Care Program Subprogram 3)' 포함 및 필리핀 의료 시스템 강화를 지원할 계획임
- * 한 나라의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외국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이나 실물 자원을 빌려오는 국제적 차용
- 차관 외에도 2025년 12월 기준 총 451억 7,000만 엔(한화 4,258억 1,746만 원) 규모의 무상원조 47건을 지원 중이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서명된 23건은 95억 5,000만 엔(한화 899억 6,482만 원) 규모임
- 일본은 2025년 12월 기준 필리핀 전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지원액의 33.54%인 139억 5,900만 달러(한화 20조 8,009억 원)를 담당하는 최대 ODA 지원국으로, 헬스케어를 포함한 다양한 개발 분야에서 지원을 이어오고 있음
- ** 중앙·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자금이나 기술 협력
- 필리핀 대통령은 글로벌 유가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일본국제협력기구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리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간 협력 심화 의지를 강조함



[Manila Bulletin, 2026.05.29.; Philippine Information Agency, 2026.05.29.]

무역통상

의료 인공지능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의료서비스

글로벌 행사



HLTH 유럽 2026

HLTH Europe 2026

개최도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행사일정 2026.06.15.~2026.06.18.

행사주제 경계 밖으로(Step Outside)

주요내용 △의료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의료 제공자 리더십
△생명과학·제약 혁신 △공중 보건 △여성 건강
△헬스테크 스타트업 투자 등을 주제로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혁신가·정책 입안자가 참여하는 유럽 최대 규모
컨퍼런스



월드 헬스 엑스포 마이애미 2026

World Health Expo Miami 2026

개최도시 미국 마이애미

행사일정 2026.06.17.~2026.06.19.

행사주제 헬스케어의 새로운 역사, 지금 마이애미에서 시작된다

주요내용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재활·보조기기 △병원 인프라
△체외진단 등 전 헬스케어 분야의 전문가기업·바이어가
한자리에 모이는 미주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헬스케어
산업 전시·네트워킹 행사(구 FIME)



BIO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6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6

개최도시 미국 샌디에이고

행사일정 2026.06.22.~2026.06.25.

행사주제 목적이 이끄는 혁신(Driven by Purpose)

주요내용 △AI·디지털헬스 △차세대 바이오치료제 △감염병·백신
△공공정책 등 18개 분야 125개 이상의 세션 운영과
BIO Partnering™ 플랫폼 기반 파트너십 미팅 및
스타트업 투자 네트워킹 행사

International Healthcare Week



8-10 July 2026 | QSNCC, Bangkok, Thailand

인터내셔널 헬스케어 위크

International Healthcare Week

개최도시 태국 방콕

행사일정 2026.07.08.~2026.07.10.

행사주제 하나의 장소, 세 개의 전시회, 무한한 헬스케어 비즈니스 기회

주요내용 △CPHI South East Asia △WHX Bangkok
△Medtec Southeast Asia 3개 전시회를 동시
개최하는 동남아시아 최대 헬스케어 행사



바이오 아시아-타이완 전시회 2026

BIO Asia-Taiwan Exhibition 2026

개최도시 대만 타이베이

행사일정 2026.07.15.~2026.07.19.

행사주제 아시아에서 출발하는 혁신, 세계를 움직인다

주요내용 아시아 최대 바이오텍 행사로 △세포치료 △정밀의료
△제약 장비 등 주제별 세션과 글로벌 파트너십 매칭을
제공하는 아시아 바이오산업의 핵심 플랫폼